

행복한 생활습관 시리즈 II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습관

(빌립보서 1:12-21)

1. 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진짜 불행해지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평생소원은 로마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옥을 재해석했습니다. 매일 4시간마다 교대하며 자신을 지키는 로마 친위대 군인들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었다면 저 콧대 높은 엘리트 군인들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을 내 발 앞에 친히 보내주셨구나!’ 결국 그 차디찬 감옥은 로마의 심장부를 복음으로 폭격하는 선교 본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갖는 순간, 환경을 압도하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2. 마음의 통제권을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 습관

두 번째 습관은, 까탈스러운 사람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태도’를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를 시기하던 경쟁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끝났다. 이 틈에 우리 영향력을 키우자”라며 바울에게 상처를 주려고 괴상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하고 끔찍 앓다가 내 평안을 마귀에게 다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타인의 비난에 자신의 행복 스위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주변의 비방 따위에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영적 배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바짝 밀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3.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마지막 습관은, 내일 일을 내가 쥐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늙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내일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도 그의 기쁨을 꺾지 못했습니다. 살고 죽는 결과조차 신실하신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고집대로 풀렸다면 벌써 교만하여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감히 상상조차 못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곳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성령님이 막으셨고, 순종하여 강제로 튼 발걸음이 빌립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고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반전 드라마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감옥이라는 악조건까지도 다 버무려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 이 신뢰가 있었기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니 의미가 있고,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니 축복이라는 영적 배짱이었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짜증과 압박감, 인간관계의 상처에 허우적거리며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세 가지 영적 습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바짝 붙으십시오. 내 계획이 깨진 그 자리에 일하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